

사설

새로운 방생문화 기대한다

생명 존중의 적극적 발현인 '방생'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의례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그 동안의 방생 법회는, 방생의 기본 정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진행되어왔다. '생명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 죽이기'라는 비난은 물론, 최악의 종교 상업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생법회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고 방생법회의 주제들이 비난의 내용만큼 들지각하거나 과감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별다른 고민 없이 등기의 순수함이나 행위의 선함만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모든 생명에는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불교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종교나 사상보다도 투철한 불교의 평등사상을 몰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본 결과였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서구문명의 전지구화가 가져온 폐해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절 때

문에 방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문제는, 방생이라는 행위가 불교의 절대적 자비정신과 합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부끄럽게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다. 그 동안 행해진 방생은 다분히 반생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볼 때, 조계종 총무원이 내놓은 <친환경 방생법회 지침서>는 그간의 폐해를 일거에 해소하지는 못할지라도 방생의 근본정신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특히, 오는 20일에 북한산 도선사에서 열릴 예정인 '자연과 생명 살리기 방생행사'는 조계종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무조건 박수를 치기에는 미흡한 구석도 있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캠페인 성격의 감안하더라도, 한여름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특정 조수를 풀어놓는 행위 등은 생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루어진 새로운 방생문화가 자연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건 없는 자비의 실천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지리산 위령제와 해원 상생

'생명 평화 민족화해 지리산 위령제'가 지난 5월 26일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열렸다. 이날 위령제에는 50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지리산에서 수많은 삶을 마감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생명과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기원했다. 우리는 많은 산 가운데서도 지리산에서 위령제가 봉행되었음을 주목한다. 지리산은 민족사의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다. 좌와 우의 대립으로 수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다. 아직도 그 상흔은 지워지지 않았다. 남과 북이 그렇고, 지리산에서 잠든 사람들이 그렇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서로에게 품었던 증오를 완전히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위령제에서 참전군인과 피학살자 유족회원들이 만났다. 그리고 지리산의 영가들이여, 이제는 편히 잠드소서 라고 기원했다. 실로 50여년만이다.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가 한때의 시기였다. 이제 그 한을 풀어내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지리산 위령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200여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치렀다. 특히 7개 종교계는 위령제를 위한 백일기도, 백주대간 종주 등을 통해 마음을 모았다. 아직도 남북의 분단은 엄연하다. 과거의 대립이 남북화해의 앞길을 막고 있다. 해원 상생의 길을 여는데 종교의 역할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0년 전에는 좌우의 이념 대립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다면,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이 우리를 옥죄었다. 지리산담이 그 대표적 예다. 갈수기에 영남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 지리산에 10여 개의 소형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 부족을 땀 결이라는 자연과괴적인 형태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과 같은 비극의 씨앗은 인간의 탐욕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죽임에서 살림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현상이 되어야 하는 지리산이 또 탐욕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문화재 전문수사관' 운영

이무영 경찰청장 조계종에 '도난 성보 수사계획' 전달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문화재 전문수사관제도가 시행된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문화재 전문수사관을 지정, 문화재사범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문화재 전문수사관제도의 운영을 포함한 '도난 불교문화재 수사계획'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문화재 전문수사관 지정과 관련, 경찰청 김인숙 지능2계장은 "이미 245명의 경찰관을 문화재 전문수사관으로 지정해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 발대식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에 앞서 24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이무영 경찰청장으로부터 문화재 전문수사관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문화재 도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경찰청별로 전문수사관을 설치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찰청장의 정대 총무원장

예방에는 총무부장 원택스님, 문화부장 혜자스님, 기획실장 현고스님, 호법부장 종지스님,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

"강원-종단 기본교육 기관으로 승가대·동국대-전문교육기관"

전국 교직원 스님 요구

강원(승가대학)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강원을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를 대학원 형식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조계종 교직원 스님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범용(가) 5월 29-30 이틀간 적지사 설법전에서 개최한 '강원교육 개선을 위한 교직원 연찬회'에 참

석한 전국 18개 강원외의 강주 강사 중장 등 교직원 45명은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연찬회에서 원호스님(쌍계사 강사)은 "강원을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하고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연찬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대부분 동감을 표하면서 "강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심도있는 교육과정을 통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포교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은스님(송광사 강주)은 "일반대학의 개편위주 강의보다는 원전 중심의 강의를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에 치우치는 대학교육방식과는 달리 선과 교를 겸비한 교육으로 강원외의 특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교직원 스님들은 "강원의 전통과 특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교육원에서부터 강원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명우 기자

'도난 불교문화재 수사계획' 될 담았나

경찰서-사찰 방법망 구축

이무영 경찰청장이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에 예방해 밝힌 '도난 불교문화재 수사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재 전문수사관의 지정이다. 경찰청은 이미 본청과 14개 지방경찰청, 230개 경찰서별로 각 1명씩 245명의 경찰관을 문화재 전문수사관으로 지정했으며,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현황 파악 등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방안을 총무원과 사찰,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에 알려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단언했다. 문화재 전문수사관은 문화재 도난 예방과 조기 검거를 주업무로 한다. 전문수사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문화재청 조계종과 협조하여 문화재감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케 한다는 것이다. 아직 교육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이달 말 발대식 이후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관서와 사찰을 잇는 방법망도 구축된다. 경찰관서별로 문화재 소장 시설과 유물선 방법망 구축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도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모든 사찰에 방법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함에 따라 물리적인 조치는 확보한 셈이다. 경찰청은 또 문화재와 고가미술품에 대한 수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인터폴과 협조해 국제적인 수배조치도 취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수년 전 도난당한 송광사 국사 진영 등 중요 도난문화재 38점의 사진과 관련 자료를 인터폴에 보내 국제적인 수배를 해 놓은 상태다.

같은 전담수사관의 구성을 요청했다. 전문수사관제도로도 불교문화재의 도난 방지와 사건 발생시 조속한 도난 성보의 회수 및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장 혜자스님은 "경찰의 전문수사관 지정은 이어 사찰성보 조사와 이뤄지면 성보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연장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문화재 도난범의 공소시효 연장(현행 7년)과 보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법률이 강화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본사 포교국장협' 구성

회장 종본스님...국제포교부 개설등 협의



동화사, 해인사, 송광사 등 전국 14개 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은 5월 29-30일 이틀간 대전 백제 불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포교국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종본스님(동화사)을 선출하는 한편, 본사별로 돌아가며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포교국장 스님들은 협의회를 통해 △포교예산 독립과 포교사업계획에 주도적 참여 △포교사업의 경우 포교국장의 결재 라인 형성 △업무 권한 확보 등 포교국의 권한과 위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교국장 스님들은 또 사찰 수련회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포교원에 국제포교부를 개설하는 문제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1년 빠르게 되는 불기(佛紀) 문제도 세미나를 통해 바로 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과 포교원 관계자들은 사찰 수련법회를 사회적으로 정착시키고 포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교원 내에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를 설치, 13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Modern Mantra (현대만평) by Park Gu-won.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man in a suit being pulled in multiple directions by figures representing different ideologies or forces, with the text '숨을 곳 없다!!' (No place to breathe!!).

Galwolssiyeongtam (Galwolssiyeongtam)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tupa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actice, including spiritual growth and relief from suffering. Contact information: 031-772-1909, 771-9577. Website: http://galwolssa.bz.co.kr